

전국 '수돗물 유충' 공포 확산 광주시, 긴급점검...“안전하다”

인천·경기·서울 등 민원 쇄도
광주시, 정수장·시설물 점검
“갈따구 유충 발견되지 않아”
노후 수도관 정비는 시급

인천과 경기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되고, 서울과 강원도 일부 지역에서도 '수돗물 유충' 민원이 접수되면서 먹는 물에 대한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광주에서도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수차레 수돗물에서 이물질이 섞여 나오는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민들은 광주시의 수돗물 관리에 대한 안전성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최근 광주지역 정수장과 시설물 주변 등을 현장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 갈따구 유충은 발견되지 않았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용연·덕남 정수장 2곳과 착수정, 집전지, 여과지, 배수지, 수도꼭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조사와 점검을 벌였다.

자체 실험실에서 유충에 대한 정밀 검증도 했지만, 갈따구 유충은 전혀 발견되

지 않았다.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방충망 등 시설물을 정기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해충이 정수시설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한 것이 주효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 흐린 수돗물 출수 사고가 잇따라 터진 뒤 상수도 사업본부가 혁신 작업에 나서면서 수돗물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따라 광주시 수돗물 사고와 관련, 지난해 상수도 분야 정책과 행정혁신, 그리고 대대적인 조직 혁신을 예고했다."

그러면서 이번 하반기 인사에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기술분야 전문 인력을 전진 배치하는 등 직원을 대폭 보강했다.

염방렬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은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단방약 처방으로는 어렵고,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는 현장 중심의 행정을 위해 현장 인력을 중심으로 조직을 재편하고 전문적인 인력 양성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를 위해 현재 광주시 서구 치평동 상무지구에 있는 상수도사업본부를 덕남정수장으로 이전하

고 현장 중심의 조직을 3개반에서 11개반까지 늘릴 예정이다. 인원도 기존 9명에서 30여명까지 증원할 계획이다.

염 본부장은 "인천 수돗물 사고는 전문 기술 인력인 기능직들이 일반직화 되면서 상수도 현장을 떠났고, 현장 경험이 없는 직원들로 바뀐 것이 원인이 됐다"면서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현장 중심의 기술인력 배치를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상수도를 공급할 것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여전히 광주지역 노후 수도관 비율이 50%에 달하는 만큼 노후 수도관 정비 사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꼽힌다.

광주의 상수도 총 길이는 3933km로, 이 가운데 20년 이상이 된 관로는 전체 48.26%인 1896km다. 이 중 1988년 이전 제작돼 30년 이상된 관로도 전체 14.57%에 첫 수돗물이 공급된 것은 1920년 5월인 573km에 이른다.

한편, 정부는 인천 부평구에 이어 경기 광주시와 파주시, 서울 중구와 강원 양양군에서까지 수돗물에서 벌레가 나왔다는 민원이 접수되자 전국 484개소에 달하는 정수장에 대해 긴급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당사에서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난 극복하고 도덕성 회복” 김부겸 “국민 눈높이에서 당 재정비”

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 ... 박주민 의원 출마 고심

더불어민주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하는 8·29 전당대회 경선의 막이 올랐다.

〈관련기사 3면〉

우선 유력 대선 주자이자 당권 주자인 이낙연 의원은 20일 현충원을 참배한 뒤 서울 여의도 당사를 직접 찾아 당 대표 경선 후보 등록을 했다. 현충원 방명록에 “모든 힘을 다해 국난을 극복하겠습니다”고 적은 이 의원은 후보 등록을 마치고 “책임 정당, 유능한 정당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그는 이어 “국난 극복과 도덕성 회복 등의 문제를 책임 있게 해결해 세대 여당다운 당의 모습을 갖출 것”이라고 말했다.

본격적인 경선전이 시작되면서 이 의원은 보다 공격적인 자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이 의원은 이날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미향 의원과 박원순 전 시장 의혹 등 현안에 말을 아꼈는데 대해 “대처가 좀 굼뜨고 둔감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다른 정치인은 자유롭게 말해도 괜찮지만, 저는 위치가 특별해서

좀더 조심스러움이 있었다”며 “앞으로 후보이기에 좀 더 자유롭게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반영하듯, 이 의원은 이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해설도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 손대는 것은 극도로 신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등 진전된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로 내려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선거 운동을 본격화했다.

강원도를 방문 중인 김부겸 전 의원은 캠프 관제자를 통해 이날 오전 당 대표 후보 등록을 했다. 이날 강원도를 찾은 김 전

의원은 강원도의회 세미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총선에서 국민의 큰 지지와 성원을 얻은 민주당은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며 “당 대표가 되면 국민의 눈높이에서 당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 전당대회는 대권 후보를 뽑는 것이 아니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자리”라며 “맛아야 할 화살은 당 지도부가 맞고 대선 후보들은 활기있게 자신의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피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런 가운데 박주민 최고위원도 당 대표 경선 출마를 막판 고심하고 있어 주목된다. 당 대표 후보 등록은 오는 21일 마감된다.

한편, 5명을 선출하는 최고위원 선거에는 현재까지 노웅래, 이원욱, 이재정 의원과 염태영 수원시장이 출사표를 냈다. 또 진선미, 소병훈, 김중민, 한병도, 양향자 의원도 출마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 “그린벨트 미래세대 위해 보존”

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주택 공급 물량 확대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는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개발과 관련해 미래세대 위해 해제하지 않고 계속 보존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관련기사 3·5면〉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가진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주택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 차원에서 '그린벨트 해제 검토' 입장을 밝힌 이후 여론에서는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놓고 다른 목소리가 불거졌고 이는 부동산 정책 혼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동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부담 강화와 함께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과 정 총리는 주택공급 물량 확대를 위해 기간 검토해온 대안 외에도 다양한 국·공립 시설 부지를 최대한 발굴·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 소유 태릉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거론된 데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논의를 이어가도록 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수석·보

좌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넘치는 유동자금이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 부분이 아니라 건전하고 생산적인 투자에 유입되도록 해야 한다”며 “주식 장기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인하는 정책적 방법을 검토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개인투자자의 참여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좌우되는 주식시장의 불안정성을 낮추는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개인투자자 보호 및 장기투자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개인 투자자의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재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코로나19 확산 속 노조 집회 논란 ▶6면

굿모닝 예향 - 싸목싸목 '영광' ▶18·19면

타이거즈 전담대 - 마운드의 힘 ▶22면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광주수돗물

깨끗하고 맛있습니다!

맑고 깨끗한 상수원

맑고 깨끗한 선진강 지류 산간계곡의 청정 원수를 사용합니다.

엄격한 수질검사를 통과한 명품 수돗물

원수 124개 항목, 정수 225개 항목을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있습니다.

믿고 마실 수 있는 똑똑하고 안전한 수돗물

수돗물 공급 전 과정에 IC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한 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도요금 바로알림톡 서비스 안내

이제 고지서 분실 걱정 없이 **수도요금을 카카오톡 알림톡**으로 확인하세요!

Q. 수도요금 바로 알림톡 서비스란? 우리집 수돗물 사용량과 납부금액은 물론 사용기간, 납부방법 등 요금 세부내역을 매월 카카오톡 알림톡 또는 핸드폰 문자로 편리하게 받아보실 수 있는 전자고지 서비스

Q. 서비스 신청방법은? 전 화 : 관할지역사업소 신청
인터넷 : 상수도본부 홈페이지 신청 (water.gwangju.go.kr)

문의사항 안내 062-121

- 동부사업소 062) 609-6500
- 서부사업소 062) 609-6600
- 남부사업소 062) 609-6700
- 북부사업소 062) 609-6800
- 광산사업소 062) 609-6900

**오직 깨끗한 물!
오롯이 광주시민에게!**

광주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